



지난 3월 30일 밤 11시 50분, 문화재청 사법단 숙반에 피전화가 걸려왔다. "남양주 별내면에 가면 석물이 있을 것이다" 팔각. 발신자는 공중 전화였다. 다음날 사법단숙반은 남양주 별내면의 택지 개발지를 샅샅이 뒤졌다. 현장은 전날 밤 비가 와서 온통 진흙탕이었다. 아마도 전화를 한자는 이점을 노렸을 것이다. 한참 수색하다보니 푸른 천막 사이로 석조물이 보였는데 이것은 문경 김용사 '장로계성당공덕 불방비 귀부 1점'과 울주 '최진립 장군(조선 중기 무신, 1568-1636) 묘 장군석 2점' 등 11점의 문화재급 석조물이었다.

최근 문화재의 도난, 도굴은 문중이나 종택, 사찰 등 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사찰의 경외의 비석과 문중의 고서, 나무 판본과 묘지의 석물 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석조물들은 개인의 정원석이나 물지각한 수집가에게 팔려나가게 된다. 지금 전국에는 869곳의 고미술품 거래처가 허가되어 있다. 그러나 허가를 득하지 않고 거래를 하는 곳도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곳이 도난 문화재를 불법으로 모집해서 거래를 하는 온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번에 자진반납 행태를 취한 것도 사실은 문화재청의 사전 예방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면 된다. 문화재청은 2002년부터 불법 도난, 도굴 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를 신고 받아 문화재청 홈페이지



불자 세상보기

황 평 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문화재 도난은 예방이 최선

에 게시해 놓고 있으며 신고를 받으면 전국의 353곳의 기관(지자체, 일선경찰, 박물관, 고미술협회) 등에 통보하게 된다. 문화재청의 통보를 받은 기관들은 철저하게 감시하게 되고 869곳의 고미술협회 가입 회원들은 도난 문화재에 대해서는 거래 자체가 원천 봉쇄되기에 이른다.

아마도 이번에 자진 반납한 자도 이러한 공개적인 활동에 의해 도난 문화재는 거래를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에 찾은 문경 김용사 '장로계성당공덕 불방비 귀부 1점'은 신고 된 사진과 다르다는 점이다. 즉 반납한 자는 많은 도난품을 은닉하고 있었는데 급하게 반납

하다 보니 그 중 김용사 불방비와 비슷한 석조물을 반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아직도 많은 은닉 석조물이 모처에 보관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11점 중에 소장자가 확인되지 않은 6점(불방비 기단석 1점, 이수 1점, 석양 4점)은 소장자 확인 및 도난신고 처리를 위해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의 중이라고 한다. 즉 아직도 도난당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도난, 도굴 문화재의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 처리보다 예방이 절대 우선이다. CCTV를 설치하고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면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우선해야 할 일이

있다. 사찰경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석조물과 문중의 묘소에 있는 석조물이나 나무판본 등은 사진을 찍어두는 게 중요하다. 또한 예전과 다르게 경찰지구대나 지자체는 시, 도등의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문화재청에 직접 도난 신고가 가능하다. 이때 사진 자료가 결정적이다. 이번에 화수된 11점 중 6점이 출처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1차 신고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사후처리도 완벽하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의 사법단숙반의 실상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전국적인 문화재 사법단숙반 인원은 5명에 불과하다. 그 중 2-3명은 내부 행정업무에 동원되고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은 2명 정도이다. 또한 불법으로 매매되는 고미술품의 70-80%가 서울에서 거래된다. 이들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기동력이 생명인데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차량도 없는 실정이다. 기타 전자화면 장비는 말 할 필요도 없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불법 문화재거래에서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불국토인 우리나라는 불교 문화재 도난, 도굴의 사각지대이다. 예방교육의 상시화와 기본적인 자료를 항상 준비해서 불법적인 상황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중생을 벗고 지혜의 눈 뜨는 날

부처님오신날. 이날은 역사 속 고타마 시타르타의 탄생일이다. 그리고 일체중생의 본래진면목을 간파하여 고통을 벗어나는 길을 밝혀 주신 위대한 성인으로서의 부처님이 탄생한 날이기도 하다. 불교가 형성되고부터 줄곧 부처님의 탄생은 인류에 커다란 축복이었다. 부처님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지금보다 더 캄캄한 곳에서 방황하고 고통 받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로도 초파일은 불교의 가장 큰 명절이었다. 부처님의 탄생을 기리는 한 성인의 생일날의 의미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 위 하늘 오직 홀로 존귀한 '자존의 가르침을 전하신 부처님이 탄생함으로 인하여 생로병사의 고통을 초월하고자 하는 인간의 희망이 결코 허망하지 않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둘러보라. 주변국들의 정치 군사 경제적 육망과 속셈을 살펴보라. 무엇보다 동족인 북한의 국제적 위상과 국제사회를 향한 외교적 행보를 보라. 불안하고 위험하고 안타까운 구석이 한 두 곳 이 아니다. 국제정세와 국내의 정치 상황, 경제상황은 하루하루 외줄타기를 하듯 불안하다. 경제위기가 쉬 극복될 조짐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대북관계와 수출입의 균형감 회복 등에도 낙관할만한 요건이 없다.

이렇게 불안하고 복잡한 가운데 우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았다. 그리고 곳곳에 연등이 밝혀지고 사람마다 행복과 건강과 평화를 회구하는 마음을 밝히고 있다. 옛날 가난한 난타가 정성을 담아 밝혔던 초라한 연등이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듯, 어려운 속에 밝혀 든 불자들의 등은 밝고 따뜻하다. 희망과 자비의 마음이 함께 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희망이란 무엇이겠는가? 물질적인 풍요와 눈앞의 이익을 바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부처님은 유위의 행복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를 가르치셨기에, 불자들은 실재하는 것을 초월한 행복의 세계를 알고 있다. 불자들의 희망은 바로 있는 것으로부터의 해방, 그리하여 없는 세계에서 드러나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근원적인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부처님오신날의 '새 소식'이란 바로 있음의 세계에 대한 집착을 떨쳐 버리고 절대자유의 세상으로 향해 뛰박뛰박 걸아가라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다.

지금 우리가 밟아야 할 서원은 온갖 욕망으로 얼룩진 세상을 깨끗이 청소하여 제불보살의 원력이 다 성취된 정도를 건설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분명하게 가르치셨다. 예토를 사는 것도 중생의 마음이고 정도를 이루는 것도 중생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이다. 중생의 마음이란 결국 나 한사람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나의 마음이 예토이면 중생계가 더럽고 나의 마음이 정도이면 중생계는 깨끗하다.

불교를 마음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따라 불교의 정신이 구현되기도 하고 말살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비운다는 것이고 비운다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고통이 집착에서 오는 것인 걸 깨닫는 데서부터 부처님의 정각은 완성됐다. 우리의 깨달음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유위의 세상에 대한 부질없는 집착을 끊고 무위의 안목에 비치는 모든 불보살의 진실한 모습을 보는 지혜의 눈을 뜨자. 그런 날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이다.

현불만평

박구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인곡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인턴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예시아문 www.yosiamun.com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현대불교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사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부처님오신날에

우리사회는 경기침체, 고용불안, 계층 양극화 등의 이유로 국가의 사회복지 재정을 확대 시키라는 요구가 거세지만 한정된 세수로 인해 더 이상 국가 사회복지 재정을 확대시킬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에 정부와 사회는 국가가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부문, 특히 종교계가 담당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로도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투여되는 재원과 인력에 관한 통계자료는 사회에 알려져 종교 간 비교와 각 종교가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중요한 잣대로서 작용될 것이다.

이렇게 날로 증대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단을 비롯해 교계의 사회복지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활동과 소요비용 등을 통계로 정확히 잡아 사회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우리 불교계는 사회복지단체 및 시민단체가 부족할 뿐만 아

불교계 기부문화 활성화를 염원하며

나라 몇몇 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정상태가 열악하다. 아무리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유지시켜 줄 재정을 확보할 수 없다면 모래성 같은 것과 진배없다.

그동안 재정확보를 위해 회비를 걷거나 공모에 응하거나 공공단체에 지원요청하는 등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일반불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펼치지 않는다면 단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고 도태는 자명할 것이다.

불교계가 이런 초보적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드비전, 아름다운재단,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등 우리 귀에 익숙한 이웃종교 단체들은 다양한 전력과 조직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나라 기부문화를 선도하고, 우리나라 전체 모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이다. 점점 그 흐름 현상은 높아져 가고 있다.

또한 구세군의 자선냄비는 종교의 벽을 넘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나눔문화로 발전하고 있다. 모금액도 상당해 이를 바탕으로 구세군이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평

기도 따른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불교계도 모금활동 전문 지도자 및 직원 양성, 모금 자원봉사자의 교육과 훈련, 개인 기부자 및 고액기부자 개발 및 조직화, 정보화 시대의 모금활동기법 개발 등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조계종단에서 모금활동을 전문으로 하기 위해 2008년 9월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을 설립했고 2009년 처음으로 1배 100원모금, 희망의등 달기, 자비연꽃 뗏목, 한가나누기 운동 등의 모금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은 희망을 가져 볼만 하다.

시작이 곧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불교계 기관들이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 모금 활동을 개발하고 서로의 사교화와 정보를 공유해 나간다면 우리가 가진 무한한 자원들을 개발해 나가는데 늦지 않겠다.

박찬정 부장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DX-707 스탠드 마이크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차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탠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범당전용 스피커
高音質 무선마이크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특징: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희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불기 2553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청와대 불자회

회원일동